

김형석 「일제강점기 동아일보의 문화운동과 고하 송진우」 발표문에 대한 토론문

남 희 숙 (前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김형석(독립기념관 관장) 발표문의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일제강점기에 고하 송진우가 주도하였던 동아일보의 문화운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하 송진우라는 인물을 한국 근현대사에서 어떻게 위치 지을 것인가 라는 문제일 것이다.

발표자는 먼저 일제강점기 동아일보의 문화운동에 대한 평가가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에 주목하였다. 일제강점기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1960년대까지는 동아일보의 문화운동을 ‘민족의식을 계몽하고, 문화적으로 일제에 대항하여 민족적 애국주의를 드러낸 자주독립운동의 일환’ ‘민족의 전통문화를 보존함으로써 민족의 정신을 지키고 일제의 동화주의 문화정책에 저항한 민족운동’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경향이였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역사학이 일제 식민사학의 극복뿐만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는 통일지향적 민족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소위 분단 극복 사관이 제기되면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가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통일전선운동, 해방 직후 좌우합작이나 남북협상과 같은 통일국가 건설 운동에 주목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어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역사학계에서 역사의 주체인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과학적, 실천적 역사학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르주아 계통의 계몽운동, 문화운동, 실력양성운동을 민족운동의 주류로 서술하였던 기존의 연구를 비판하고 일제 하 농민, 노동자 민중운동과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을 중요하게 다루는 연구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동아일보 등이 주도한 문화운동은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이 추진한 개량운동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1930년대 이후에는 친일로 변질되게 된다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발표자는 이렇듯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제기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연구 경향을 소개하였는데, 그 연구들의 주요 내용은 문화운동을 계몽적이면서 온건한 민족주의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평가하거나, 식민지하에서 전통의 근대적 전환으로서 민족문화를 통해 독자적인 민족 국가를 지향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발표자는 이와 같이 역사학계에서 일제강점기 문화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의 시기적 변화 양상을 정리하면서, 이제는 이념적 편향에서 벗어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1920-30년대 민족운동을 ‘타협’=‘우파’ ‘비타협’=‘좌파’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구분하고, ‘타협’이 곧 ‘친일’인 것처럼 간주하는 역사인식에서 벗

어나, 일제강점기 문화운동을 민족정신과 전통문화를 토대로 국권 회복을 도모하는 독립운동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표자는 더 나아가 고하 송진우에 대한 재조명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와 함께 활동했던 동아일보와 한민당 계열의 일부 인사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낙인찍히면서 이와 무관한 그의 행적도 오해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잊혀진 독립운동가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동아일보의 문화운동이 재평가됨과 더불어 고하 송진우라는 인물이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그의 활동과 업적에 걸맞은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토론자로서 김형석 관장 발표문의 주요 논지와 취지에 대해 공감을 표한다. 더하여 고하 송진우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참고가 될 만한 저의 견해를 몇 가지 덧붙이면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고하 송진우의 일생을 두고 볼 때 그의 사상이나 신념에 큰 변곡점이 되었던 때가 언제였을까 하는 점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변곡점을 잘 이해하게 되면 그의 사상과 활동에 대해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고하의 글 중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평가받고 있는 명논설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고하의 사상적 변화를 시기로 나눈다면 제1회 태평양회의에 참가한 1925년 7월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고하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태평양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동아일보 특파원으로 1925년 6월 11일에 출국하였다. 회의는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 정도에 걸쳐 진행되었다. 1920년대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민간 국제기구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존재를 인정받으며 조선의 식민지 상황을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고자 노력하였다. 그 대표적인 민간 국제기구가 바로 태평양회의였다.

태평양회의는 태평양 연안의 각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등에 관하여 학술연구와 조사활동을 하고 2년마다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교환을 함으로써 국제적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직된 태평양문제연구회(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에서 개최한 국제회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을 반성하고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와 상호 이해의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1925년 7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회 태평양회의를 개최하고 태평양문제연구회가 창립되었다. 제1회 태평양회의에는 조선, 중국, 필리핀, 일본, 미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에서 139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조선에서는 YMCA를 중심으로 참가를 추진하여, YMCA 간부인 신흥우와 유억겸, 보성전문의 김종철, 조선일보의 김양수, 동아일보 송진우와 미국에서 합류한 서재필 등 6명이 대표로 참가하였다.

고하의 회고에 의하면 조선 대표들이 함께 모여 어떤 문제를 발표할 것인지를 정했다고 하였고, 신흥우가 단장으로써 7월 1일에 연설을 하였다. 그는 조선의 지리, 역

사, 종교를 소개한 다음, 일본의 동화정책에 기반 한 식민지 정책, 식민지 경제정책, 일본인 이민정책 등을 비판하였다. 이 회의가 폐막한 이후에 각국에서는 태평양문제 연구회의 지회가 설치되었는데, 조선에서도 1925년 11월에 조선지회가 조직되었고, 윤치호, 신흥우, 송진우, 안재홍, 백관수, 백남운, 이순탁, 유억겸, 조병옥 등이 회원이었다. 고하는 미국이 주도한 태평양회의와 태평양문제연구회 활동에 큰 기대를 걸었다. 1925년 6월 11일자 동아일보 사설 「태평양문제연구회, 조선인이 출석할 의의」에서 조선인이 회의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를 진리와 정의와 인도의 관념을 지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연구회와 회의에 관련된 진행상황도 수차례 보도하면서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회의 후반에 일본이 회원자격을 독립국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은 참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또 일본 대표들은 조선은 일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조선 문제는 국내 문제이며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는 주장까지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서재필은 조선 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동양의 문제이고 전 세계 인류의 문제라는 점에서 조선 문제를 이 회의에 제출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주장에 반발하여 조선 대표들은 짐을 꾸려 회의 도중에 귀국할 의향까지 보였을 정도로 회의는 조선인 참가 문제를 두고 갈등하게 된다. 1927년 7월 하와이에서 열린 제2회 대회에서 일본은 회원 자격을 태평양에 인접한 주권 또는 자치국으로 한정하는 규약을 관철시키고자 하였고, 1929년 10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회 대회에서는 조선 대표들이 정식 대표가 아닌 일본 그룹의 초청이라는 형식을 빌어 참석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면서 조선 대표들은 제3회 대회 참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태평양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¹⁾ 고하는 1925년 제1회 태평양회의에 참가하면서 겪은 이러한 굴욕적인 논란을 계기로 민간 국제기구도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통렬히 체감하면서 독립운동의 현실적인 실천 방안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를 두고 깊이 고민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하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은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하와이에서 이승만과 서재필을 만나 수 주일간 함께 생활하면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계정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는 귀국한 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회에 걸쳐 연재한 논설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에서 세계정세의 변화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진단하고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이전에 고하가 쓴 어떤 글보다 세계정세에 대한 폭넓고 정확한 판단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명확히 확립된 글이다. 20세기는 공산주의의 확장으로 자본주의의 모범인 미국과 사회주의의 대표인 러시아의 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미국과 일본의 충돌이 발생할 시에는 미국의 세력 하에서 조선이 해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하는 위 논설의 마지막 부분에 “도래할 세계적 변국에 처하여 어떠한 수련을 가

1) 태평양회의, 태평양문제연구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조선 대표 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김경일, 「식민지시기 국제민간기구의 내용과 성격-태평양문제연구회(IPR)와 태평양회의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3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4.6을 참고하기 바란다.

하여 어떠한 준비를 행할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사상적 수련과 민족적 단결이다. (중략)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외세의 파동보다 타력의 원조보다, 중심세력의 확립과 자체세력의 해결을 절규 역설하는 바이다. 요컨대 조선 문제는 민족 자체의 단합이 확립하는 그날로부터 해결될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라고 하여, 민족 단합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해결 방안을 역설하면서 논설을 마무리 하였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미일이 충돌할 것이고 그로 인해 일본이 필연적으로 패망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그 날이 올 때까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교육과 전통문화 선양을 통해 민족문화를 함양하고 이를 통해 민족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확립하게 되었다. 그의 이러한 사상적 신념과 실천적 전략은 그 이후 동아일보를 통해 전통문화 보존운동, 브나로드운동 등으로 실현된다. 1925년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에서 보여준 민족단결이 독립을 준비하기 위한 당면한 해결책이라는 확고한 신념은 그 이후 고하의 여러 글이나 활동 등에서 일관되게 지속된다.

발표자께서는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 논설에서 제시한 세계정세에 대한 고하의 주장이 1941년 8월 일본의 미국 침략을 예언하여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은 이승만의 저서 『Japan Inside Out』보다 16년이나 빠르다는 점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지만, 아마도 1925년 하와이에서 이승만, 서재필, 송진우 세 사람의 만남과 토론은 서로에게 깊은 인간적 교감과 사상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25년 7월의 태평양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세 사람의 만남이 있는 이후 이승만과 서재필은 고하를 격려하는 글과 편지를 보내오게 된다. 1926년 3월 5일 국제농민본부에서 조선농민에게 보낸 3.1절 기념사를 동아일보에 게재한 일로 주필이었던 고하가 그해 11월 13일에 보안법 위반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 남강 이승훈이 감옥에 수감된 고하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와이에 있는 우남 이승만에게 알렸고, 이승만은 한시를 써서 인편으로 이승훈에게 보내고, 이승훈은 고하를 위로하기 위하여 이것을 족자로 만들어 보내왔다.

서재필은 1926년 6월 12일자로 고하에게 위안과 격려의 글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O에 있거나 사무를 보거나 선생은 조선민족에게 합작적(合作的) 정신을 고취하며 물질 및 정신상으로 분투 맹진해야 할 것을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직 분투의 일을 하기 전에는 그 장래는 암흑합니다. 우리는 일하여야 하겠습니다. 일하되 합하여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직 우리를 살리는 길이외다.”라고 하면서 고하에게 민족단결이 중요하고 고하가 그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고하가 논설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에서 조선의 혁신운동은 그 기원을 갑신정변에서 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4천년 이래의 신기축(新機軸)을 전개하여 일대 변혁을 시도하려 하였던 것으로 매우 높이 평가하였던 것도 하와이에서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서재필을 만나 큰 영향을 받은 것에 기인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상을 통해서 볼 때 고하는 1925년 제1회 태평양회의 참석과 이를 계기로 한 이승만, 서재필과의 만남을 통해 사상적으로 큰 전환을 이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정세의 변화를 깊이 이해하고 일본은 반드시 패망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으며,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단결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상적 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둘째, 그러면 고하는 민족단결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가? 그의 실천 전략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고하의 사상 체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선택한 것은 민족문화 보존을 통해 대중의 민족의식을 함양하고 문맹 퇴치 교육을 통해 조선인의 각성을 일깨우는 것이었다. 이것은 아마도 일제강점기 언론인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리하여 고하는 동아일보를 통해 조선 민족을 하나로 단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성공적으로 이끌게 된다. 민족을 하나로 단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잠재된 민족의식을 대중적 차원의 민족운동으로 승화시킬 방안이 필요했다. 고하는 역사 속에서 단군, 세종대왕, 이순신을 소환하여 그들을 조선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구심점으로 삼았다. 단군은 조선 민족이 탄생한 뿌리이고, 세종대왕은 문화의 가장 중요한 척도인 문자 한글을 창제한 문화 창조의 상징이며, 이순신은 일본의 침략을 막아낸 구국의 영웅이기 때문이었다.

발표문에서는 고하와 동아일보의 전통문화 보존 운동으로 단군 영정 공모와 백두산 기획 보도, 이충무공 유적 보존 운동만을 서술하였지만, 고하의 한글 보급에 대한 열정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다. 1930년 12월부터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제정 작업이 시작되어 1932년 12월에 조선어학회의 원안이 완성되고 공포되었다. ‘한글맞춤법통일안’ 머리말에는 “이 통일안이 완성됨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내지 물질적으로 많은 성원과 두터운 양조(襄助)를 주신 경향유지 인사에게, 특히 공탁(孔濯), 송진우(宋鎭禹), 김성수(金性洙) 기타 제씨와 각 보도기관 및 한성도서주식회사(漢城圖書株式會社)에 대하여 길이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하여 고하가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노력과 적지 않은 재력을 들여 수년이나 걸려서 만든 표기법이 실용화되는 과정에서도 고하의 용단과 노력이 컸다. 새 맞춤법을 채택하면 모든 인쇄 시설들이 새 활자를 만들어야 하고 종전의 지형(紙型)은 쓸모가 없게 된다. 따라서 새로이 들여야 할 노력과 시간과 경제적 지출은 너무도 부담스러운 문제였다. 이 때 동아일보는 많은 경비와 노력의 부담을 감수하고 1933년 4월 1일자 신문부터 솔선수범으로 이 맞춤법을 채택하여 우선 사회면과 학예면을 통해 한글맞춤법통일안 보급에 전력하였다. 이충무공 유적 보존 운동도 동아일보가 193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일각에서 너무 지나치게 지면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열정적으로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는데,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및 보급도 동아일보가 경제적 어려움까지 감수하고 열정적으로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게 된다.

고하는 민족문화 함양과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결코 서두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차근차근 진일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동아일보 1932년 1월 1일

자 신년 논설 「노력전진 갱일보(努力前進 更一步)」에 그의 그러한 자세가 잘 드러나 있다. “과연 우리는 지나간 한 해에 일보를 전진하였는가. 그렇다. 확실히 우리는 나아갔다. 수난 중에 있으되 그 수난과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의식은 일층 견고하여졌으며, 그 난중에 있어서 대중의 각성은 일층 철저하다. 엄동의 빙설이 두터웁되 새로이 새로이 움트는 생명의 씨는 자라고 있나니 그 나아감이 더디다 하여 이를 근심할 것이냐. 오직 한 걸음 한 치의 걸음이 곧 인류사회의 대행진곡에 있어서도 그 역사적 사명을 충실히 하는 까닭인 것을 알 뿐이다. 우리는 한 걸음을 귀히 여기자. 한 걸음의 진취를 금일의 의무로 하여 새로 맞는 한 해에다 노력 전진 또 한 걸음 지보(地步)를 꾸준히 쌓아 나아가자.”

이렇듯 단군, 세종대왕, 이순신을 민족문화의 상징으로 내세워 민족을 하나로 단결시키려고 했던 고하의 전략은 매우 유효했다. 이 문화운동은 잠재된 민족의식을 대중적 차원의 민족운동으로 승화시켰고, 고하와 동아일보는 언론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동아일보에서 추진하였던 문화운동에 대한 평가와 고하 송진우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관련지어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발표자는 결론에서 “(1920·30년대) 이 시기에 고하는 사장(12년8월), 고문(1년), 주필(2년 4월) 등 16년간에 걸쳐 동아일보를 이끌며 문화운동을 지휘하였다. 따라서 동아일보의 문화운동이 곧 고하의 민족운동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발표자의 이러한 견해는 당대 여러 사람들의 동아일보와 고하에 대한 평가를 보면 충분히 수긍되는 측면이 있다.

『신세기』 1939년 9월호에 우수산인(愚愁散人)이라는 필명의 인물이 쓴 「신문출판계 인물론」에는 “동아일보는 수차의 추상(秋霜)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 연명은 해왔으나 지난날의 면모는 그 그림자도 볼 수 없게 변하여졌다. 조선일보 역시 그렇기는 하나 동아일보가 더 심하게 창백해진 것 같다. 시세관계도 있겠지만 인적 소재에도 다대한 원인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다른 사람들은 사장 백관수(白寬洙)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나 내게는 송진우(宋鎭禹) 씨에 비견할만한 인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신문에 의하면 송진우 씨가 지금도 후원을 하는 모양인데 힘을 빌리고서도 그만한 힘밖에 발휘 못하니 큰 인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편집국장 이하 각부의 수급인물도 인재를 얻었다고 하기는 펍 어려우니 매일의 동아일보를 펴서 읽어보면 그 속에 역력히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 증명한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 글은 1939년 9월에 나온 글이니, 1936년 8월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올림픽대회 마라톤 우승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운 사건으로 고하가 1936년 11월에 총독부의 압력으로 동아일보 사장을 사임하고 난 이후의 동아일보 상황을 평하고 있다. 글쓴이는 고하가 없는 동아일보가 완전히 그 영향력을 잃어버렸고 지난날의 면모는 그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게 변하였다고 평하고 있다. 즉 그동안 동아일보의 명성과 대중적 영향력은 고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반면에 고하가 동아일보를 이끌고 있을 당시에는 동아일보에 대한 세간의 평이 사

못 다르다. 『삼천리(三千里)』 1936년 2월호에는 석병정(石兵丁)이라는 필명의 인물이 쓴 글인 「도전하는 조선일보, 응전하는 동아일보」가 실려 있다. 그 글에서 글쓴이는 “싸울 칼이 갈라져 패전할 경우면 포로 되기보다 차라리 자문(自刎)하여 버리는 용사와 같이 만일 자본력이나 인재 배치에 있어 부족하여서 다른 신문의 어깨 밑에 서게 된다면 동아일보는 스스로 폐문 정간하여 버리기는 할지언정 굴욕적 지위에 서 있지 않을 것이 동사(同社)의 긍지요, 배짱이요, 세인도 또한 동아일보의 진가를 그러리라 평하여오는 터이다. 환언하면 동아일보는 결코 제2위에 자감(自甘)할 신문이 아니다. 제1위가 못되면 적어도 동위에 서야 만족할 신문이다. 만일 돈을 내기 싫어서 주주측이 제2위에 서라 하더라도 송 사장(송진우 사장)의 기골이 그를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요, 송 사장도 막무가내라 할지라도 15년 친애한 십 수만 독자가 그를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평하였다. 고하가 동아일보를 이끌었던 15년 동안 십 수만 독자가 동아일보를 친애하였는데 그것은 고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세간의 평가처럼 고하가 동아일보를 강하게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 『호외(號外)』 1933년 12월호에 실린 「소문의 소문-송사장(宋社長)과 독재자(獨裁者)-」라는 글에서 그 비결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최근 동아일보사에 입사한 한 신입사원이 술회하여 가로되, 나는 그전에 송진우 씨라면 그저 고집투성이 독재자로만 알았더니 이번 동아일보에 입사를 하여 보니까 아주 말과는 딴판입니다. 그야 신문제작에 대해서는 모든 점을 통솔하는 관계상 자연 독재적으로 나가는 점도 없지만 아침 아홉시면 벌써 출근하여 다른 사원이 거진 다 나간 오후 6,7시까지 편집국에 혼자 떡 버티고 앉아서 새로 찍혀 나온 신문을 글자 한 자 빼어놓지 않고 살살이 주워 읽는 열성에는 정말 감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까닭에 글자 한 자라도 잘 못 쓸래야 잘못 쓸 수가 있어야지요. 역시 송진우 씨는 부지런한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당대의 여러 평가들을 통해서 볼 때,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동아일보가 민족문화 운동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확고한 신념, 특유의 배짱과 성실함으로 동아일보를 이끌었던 고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발표자의 표현처럼 동아일보의 문화운동이 곧 고하의 민족운동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고하가 서거한 다음 날인 1945년 12월 31일 동아일보 사설 「일주(一柱)를 잃다!」를 보면, “선생의 풍도와 선생의 평생을 여기에 서술할 여유 없음을 한스러워 하거니와 한 마디로 따지면 선생은 철두철미 의지의 사람이며 신념의 사람이었다.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사랑하되 소신을 움직이지 않고 고절(苦節)을 고수하는 강혁(強革)의 사람이었다.”라고 적고 있다. 고하가 일제 말기 총독부의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침병을 하면서까지 끝까지 지조를 지킨 것을 세계정세의 변화를 읽고 일제가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니 느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민족단결을 추구하며 가다보면 반드시 독립의 그날이 오리라는 투철한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광복 80년, 고하 서거 80년에 우리가 그를 다시금 떠올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감사합니다.